

# 바람을 피하는 섬

추자도는 바람을 피하는 섬인 후풍도(候風島)로 불렸다. 제주와 육지의 중간에 위치한 추자도는 바다를 향해하는 배들이 험한 바람을 만났을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요긴한 섬이었다.



**추자로** |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4-1 ~ 추자면 예초리 289(약 7.6km)

**대서6길** |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68 ~ 추자면 대서리 260(약 0.8km)

**오지박길** | 제주시 추자면 묵리 산132 ~ 추자면 예초리 325(약 2.4km)

**석두리길** |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874-9 ~ 추자면 신양리 923(약 1km)

**횡간도길** |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39 ~ 추자면 대서리 산79(약 0.4km)

**추포도길** |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88 ~ 추자면 예초리 산113-1(약 0.2km)

## 추자로 | 후풍도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를 연결하는 도로인 추자로는 상추자도 서쪽 끝인 대서리에서 시작해서 영흥리, 묵리, 신양리를 거쳐 하추자도 동쪽 끝인 예초리에서 끝난다. 추자도는 제주도에 속하면서도 오히려 육지와 더 가까워 제주와 조금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섬이다. 제주도에서도 배를 타고 두 시간 정도 가야하는 추자도는 총 42개의 섬이 추자군도를 이루고 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추자도의 명물은 참굴비이다. 농사를 짓기 힘든 추자도 사람들에게 참굴비는 좋은 수입원이 되고 있다. 아름다운 해안절경과 녹음이 우거진 숲, 그리고 바다의 맛을 맛볼 수 있는 참굴비 축제는 2014년 제주지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불과 100여 년 전만해도 추자도가 유명했던 것은 참굴비 때문이 아니라 험한 바람을 피할 수 있었던 섬이었기 때문이다. 육지와 제주도의 중간에 있는 추자도는 갑작스런 거센 바람을 피하기 위해 배들이 쉬어가던 섬이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추자도를 바람을 피하는 섬이라고 하여 후풍도라 부르기도 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장수인 최영 장군과 추자도와의 인연도 험한 바다 때문에 맺어졌다. 당시 원나라의 직할지였기도 했던 제주도는 말을 키우는 원나라 목호들이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영 장군은 공민왕의 명을 받아 목호를 토벌하기 위해 3만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제주로 출발하였다. 하지만 바다가 심상치 않자 추자도에 잠시 들르게 된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최영 장군이 그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는데 그 덕분에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되어 추자도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최영 장군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며 고마움을 기렸다. 지금도 추자초등학교 뒤편에서 최영 장군의 사당을 찾아 볼 수 있다.



추자도 전경



최영 장군사당

## 추자로 | 추자도 유배인

추자로 인근에서는 유배문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 대표 유배지인 제주도와 같이 추자도 역시 유배지로 활용되었다. 영흥2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다보면 유배인 박인택의 사당인 추자처사각이 나온다. 박인택은 유배생활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병도 치료해 주었다고 한다. 추자도에 왔던 유배인들은 글을 통해 유배의 심정과 생활에 대해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중 이진유의 <속사미인곡>과 안조환의 <만언사>는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들로 인정받고 있다. 유배인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황경한이다. 황경한은 천주교 박해로 순교한 황사영의 아들이다. 어머니인 정난주 마리아가 제주에 유배를 가면서 젓먹이였던 황경한을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자식이 평생 노비로 신분으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 호송 중 잠시 들린 추자도에 황경한을 몰래 두고 혼자 제주로 떠난다. 그후 황경한은 추자도의 오씨 어부의 손에 길러지게 된다. 그래서 추자도의 황씨 집안과 오씨 집안은 한 집안처럼 지내게 되었고, 두 집안 사이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신양4길의 끝에 있는 모진이몽돌해안을 따라 이어진 길을 가다보면 황경한의 묘와 황경한이 제주도의 어머니를 그리며 흘리던 눈물에 하늘이 감복하여 물을 내렸다는 샘물을 볼 수 있다.

## 추자로 | 엄바위



엄바위

추자로를 따라 하추자도의 예초리 포구에 거의 다다를 즈음이 되면 높이가 20m 정도 되는 커다란 바위를 만날 수 있다. 엄바위라 불리는 이 바위에는 여느 마을에서나 한 번쯤은 들을 수 있는 장사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바위 밑에서 태어나 무거운 돌로 공기놀이를 즐기던 억발장사가 횡간도로 뛰어 건너려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는 절로 웃음이 나오게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뜻을 펴지 못하게 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 일로 인해 횡간도 사람과 예초리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편이 빨리 죽는다는 믿지 못할 미신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 후 이 바위 앞에 장승을 세우고 사람들이 바위에 소원을 빌면서 엄바위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옛날에는 나무로 된 장승이 있었지만 비바람에 나무가 상하자 지금은 돌로 된 장승을 세워놓았다.

## 대서6길 | 용듬병

신화와 전설이 많은 제주의 섬답게 **대서6길**의 끝에는 용과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는 용듬병이 있다. 용이 되고 싶어했던 이무기가 이곳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살면서 추자도 주변의 섬들을 가지런히 놓아주고, 파도를 막아 물고기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게 하는 등 착한 일을 하며 수양을 한 끝에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한다. 용듬병에서는 영화 <나바론 요새>에 나오는 절벽처럼 생겼다고 해서 ‘나바론 절벽’이라 불리는 날카로운 절벽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 오지박길 / 석두리길 | 추자도의 경치

추자도의 풍광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영흥4길과 이어진 산길을 따라 올라보자. 그곳에는 밤새 불을 밝히는 추자도 등대를 만날 수 있다. 바다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은 봉우리의 정상에 세워진 등대는 이 지역의 바다를 지나는 배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이 밖에도 하추자도 북쪽 해안가를 지나는 **오지박길**에는 오지박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어 추자도 앞바다의 여러 섬들을 조망할 수 있다. 추자도에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10곳을 추자10경이라 부르는데 그 중 석두청산(石頭靑山)은 사람의 머리 모양처럼 생겨 석주머리 또는 석지머리라고 부르던 곳의 푸른 산의 아름다움의 다운 경치를 일컫는 것이다. 하추자도의 남동쪽 신양리 해안가를 지나는 **석두리길**을 따라 가면 그 경치를 볼 수 있다.

## 횡간도길 / 추포도길 | 섬 속의 섬

**횡간도길**은 추자도의 부속섬인 횡간도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추자도는 상추자도,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이렇게 4개의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 횡간도는 추자항에서 북쪽으로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도착한다. 겨울의 북풍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횡간도(橫干島)라 불렸다. 횡간도 남쪽에 작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10여 명 정도만이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유인도인 추포도(秋浦島)는 상추차도와 횡간도 사이에 있다. **추포도길**은 배가 닿는 곳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섬에는 현재 1가구만이 남아 생활하고 있다. 전기도 물도 힘들게 얻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조상들이 살아온 터전에서 삶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